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결어미 사용에 관한 연구

송은주* · 김화수**

요약 이 연구는 경기 및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4, 5, 6세 다문화가정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이해 및 표현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검사도구는 연결어미 산출을 유도하기 위한 나열, 동시, 계기, 대립, 이유·원인의 의미관계별 그림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 연결어미 사용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 연결어미 산출점수와 이해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집단 간 판단유형에 따른 연결어미 이해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다문화가정 아동이 문법성 판단 능력에서 오류를 더 많이 나타냈다.

주요어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아동, 연결어미

1. 서론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아동의 언어수준은 표현어휘가 늘어남에 따라 차츰 두 세 낱말을 붙여서 문장처럼 사용하게 된다(Bloom, 1970). 이런 문장형태는 구문적인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의미적인 관계로 연결되곤 하는데, 조사와 연결어미를 습득하여 문장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언어는 구문적으로도 점점 복잡한 형태를 취해가며 언어의 사용능력이 향상된다(Bates et al., 1994).

영어권 아동들은 2세가 지나면서부터 두 문장을 조합하여 복합문을 연결하여 사용

* 대구대 석사, 언어치료학, sejhappy@naver.com(교신저자)

** 대구대, 언어치료학, whasoolang@hanmail.net

하기 시작하고(Bloom et al., 1980), 한 낱말로 발화하던 아동들은 2세 중반부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제한적인 연결어미를 조합하여 이어진 문장을 만들기 시작한다(Bloom et al., 1980; Kim, 1997; Gleason, 2001).

단일언어사용 아동에 대한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발달순서는 일괄적이고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발달순서에 관해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데,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그 특성상 아동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환경뿐만 아니라 언어습득 환경을 가진다는 것이 한 이유일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언어를 언제,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아동의 언어발달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박신영, 2003).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결혼이민자는 16만 명으로 2008년의 14만명보다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행정안전부, 2009).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 가족(노동자, 유학생 포함) 및 혼혈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가족의 자녀들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가정에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건강가정시민연대(2004)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환경 아동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영향을 받는 특성상 언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경우, 가족구성원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상이하여 두 개의 언어가 혼재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언어발달은 초기 유아기에 가족과 함께 집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보다 늦게는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도 있고, 차례로 습득할 수도 있다. 동시에 두 개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통 3세 이전에 일어난다(황상심,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은 같은 집단 내에서도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다른 문화권은 물론, 한 문화권 내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존재한다(Nelson, 1993). 부모 간 언어가 상이하고 특히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습득이 지체되어 있는 경우 아동이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상호 작용에도 제한을 주어 발달 단계에 따른 언어습득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어를 잘못 습득한 어머니

의 경우 양육과정에서 문법적으로 바르지 못하거나 음운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인 오류를 아동에게 언어 환경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다문화가정환경이 언어, 학업, 인지수행력에 미치는 영향들과 관련하여 일괄적인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Gathercole, 2002; Bloomfield, & Dodd, 2004; H. Lee Swanson, Kelly Rosston, Michael Gerber & Emily Solari, 2008; Maria Loizou, Morag Stuart, 2003; Dodd, Holm & Wei, 1997),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결론은 다문화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언어발달 지체의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는 염려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언어발달에 있어서 두 가지 언어 중에서 습득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상발달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이 부적절한 가정 내 언어 환경 또는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서 주 양육자와 아동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경우 언어특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Hart & Risley, 1995).

다문화가정 환경 아동의 언어능력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이중언어의 사용이 아동의 언어 및 인지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황혜신·황혜정, 2000). 왜냐하면 이들 연구가 집단간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아동의 이중언어사용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고, 인지라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언어가 아동의 인지발달영역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확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박신영, 2003).

농촌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을 수용과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본 정은희(2004)의 연구에서는, 수용언어 발달에 있어서 연령이 어릴수록 지체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갈수록 생활연령에 부합되는 발달을 보여주었다. 또한 표현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68%가 표현언어지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수용언어발달과 표현언어 발달 정도를 함께 분석한 결과 수용언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표현언어 발달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생활연령이 만 3세 후반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을 살펴본 이수정 외(2008)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평균 K-BNT-C 점수가 단일언어 사용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관찰되어, 표현어휘발달 지체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관련한 상관변인에 관한 황상심(2007)의 연구에 따

르면, 아동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경험여부, 아동의 동작성·언어성 지능 및 전체지능, 어머니의 결혼기간,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어머니의 주관적 한국어 능력이 상관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수용언어 능력과 표현언어능력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검사만을 가지고 아동의 언어 발달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Paul,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또한 표준화된 검사에서 나온 점수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힘들다(Bedore & Peña, 2008). 우리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를 평가하는 목적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지체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앞으로 학업과 직업,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언어를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를 역동적 평가와 더불어서 자발화 수집,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화수, 2009).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결어미를 산출하는 과제를 사용하여 연결어미의 표현 능력을 살펴보고,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제를 사용하여 연결어미의 이해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결어미 사용 능력에 관한 자료는 이들의 진단과 중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 언어유형(표현·이해)에 따라 연결어미 사용 능력에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 각각의 의미관계에 따라 연결어미 표현 능력에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간 판단유형(정문장·오류문장)에 따라 연결어미 이해 능력에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결어미

(1) 연결어미 습득 및 발달

국어의 연결어미는 그 수가 매우 많고 한 어미 형태가 갖는 의미도 매우 다양하다. 연결어미로는 ‘고, -(으)며, -(으)면서, -지만, -(으)나, -(으)는데, -거나, -든지, -니까, -(아/어)서, -므로, -기에, -느라고, -면, -어야, -거든, -더라도, -도록, -

고서, -자, -다가' 등이 있다(이은경, 2000).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 달리 차별화 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첨가어로서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미 중에서도 연결어미는 그 수가 매우 많고, 연결어미 각각이 가지는 의미도 매우 다양하다. 연결어미는 통사적인 관점에서 이끄는 문장을 끝맺지 않고 뒤에 오는 문장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두 명제가 의미적으로 일정한 연관성을 갖도록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연결어미는 문장과 문장, 절과 절, 명제와 명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주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동시에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연결어미는 이들 고유의 어휘 의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즉 연결어미는 주로 문법 기능을 담당하면서 어휘 의미를 가지는 요소로 파악된다(남기춘 외, 2004).

연결어미를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는 과제를 이용하여 2~5세 정상아동의 연결어미 발달 순서를 살펴본 서희선(1999)의 연구에서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했다. 즉 연결어미는 2;0~3;5세에는 산출빈도가 매우 낮지만, 3;6세에서 4;5세 사이에 활발히 발달하다가 4;6세 이후에는 각 의미관계의 연결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한다고 보고 되었다.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의미관계별 연결어미 산출에 대한 연구로는 김주환(2002)의 연구가 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각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산출능력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4세에서 5세로 될 때 급격히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아동 집단과 단순언어장애아동 집단을 비교한 김정아(2002)는 5세 정도의 정상아동은 다양한 연결어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6세 정도에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연결어미 사용이 가능해지는 반면, 단순언어장애아동의 경우 나열, 계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의 사용은 활발하였으나 동시와 조건의 연결어미 사용에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보다 낮은 사용능력을 보였다.

(2) 연결어미의 의미 및 특징

이 연구의 다섯 가지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열의 의미관계란 시간성이 배제된 나열 즉 비시간적 나열을 의미한다. 나열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어미는 '-고, -(으)며, -(으)면서'가 있다.

동시의 의미관계란 선행절의 행위와 후행절의 행위 사이의 시간적 관계가 동시적으로 연결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행위가 그 시작과 끝이 동일한 경우와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 완전히 겹쳐서 일어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시의 관계의미를 나타낼 때 쓰이는 연결어미로 전해영(1989)은 ‘-고, -(으)며, -(으)면서’를 들었다.

계기의 의미관계란 시간적 나열 중에서 순차성이 있는 것이다. 선행절의 행위와 후행절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겹치지 않고 하나의 행위가 끝난 직후에 바로 이어 다음 행위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시간적 차이를 두고 다음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계기의 의미관계를 가지는 연결어미는 ‘-고, -고서, -(아/어)서, -자’가 있다.

대립관계 연결어미는 선행절의 내용과 후행절의 내용이 화용의미상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대립의 의미관계를 가지는 연결어미는 ‘-고, -(으)며, -(아/어)도, -지만, -(으)나, -는데, -(으)면서, -건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고, -(으)며, -(으)면서’를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주어에 특수조사 ‘-는’이 필수적이다. 이는 특수조사 ‘-는’이 다른 요소와의 대조를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이유·원인관계의 의미관계란 선행절이 후행절의 행위나 상태에 대한 원인을 밝히거나 이유를 제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어미로는 ‘고, -고서, -(아/어)서, -(으)니까, -느라고, -(으)므로, -기에, -자, -는데, -다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2.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는 경기 및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4, 5, 6세 외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아동 10명과 연령을 일치시킨 일반가정 아동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경우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국적은 필리핀, 일본, 태국, 베트남으로 한국에 이주한지 4년 이상 된 자로 선정하였으며, 일반가정 아동들의 경우 한국국

표 1. 대상아동의 특성

다문화 가정아동	성별	모출신국	지역	언어발달 수준	일반가정 아동	성별	지역	언어발달 수준
B1(4:4)	여	베트남	경기	4:1	M1(4:3)	여	경기	5:3
B2(4:6)	남	태국	경남	4:0	M2(4:4)	남	경기	4:8
B3(4:7)	여	필리핀	경남	4:1	M3(4:4)	남	경기	4:4
B4(5:3)	남	일본	경남	4:8	M4(4:7)	여	경기	4:5
B5(5:8)	남	베트남	경기	5:8	M5(4:8)	여	경기	5:2
B6(5:11)	여	필리핀	경남	6:4	M6(5:2)	여	경기	6:6
B7(5:11)	남	태국	경남	5:8	M7(5:5)	남	경기	5:5
B8(6:2)	여	베트남	경기	6:1	M8(5:5)	남	경기	5:8
B9(6:3)	남	일본	경남	5:2	M9(5:7)	여	경기	5:2
B10(6:5)	남	베트남	경남	5:1	M10(5:9)	여	경기	6:4

적의 어머니를 둔 일반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두 집단 모두 취학 전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 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김영태 외, 2003)의 통합연령이 자신의 생활연령 범위 보다 12개월 이상 지체되지 않고, 구문의미이해력검사(배소영 외, 2003)에서 모두 $-1SD$ 이상의 수행을 보인 아동으로 부모나 교사에 의해 신체적 발달장애, 청각을 포함한 감각장애, 정서장애 및 행동장애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을 선정하였다.

2) 검사도구

연결어미 산출을 유도하기 위해 나열, 동시, 계기, 대립, 이유·원인의 의미 관계별 5장씩 25장의 그림을 준비하였고, $22 \times 17\text{cm}$ (강순구, 1983) 크기의 흑백 그림카드로 구성하였다. 검사에 사용된 기록지는 부록 1과 2에 있다.

3) 연구절차

(1) 자료수집

이 연구는 경기 및 경남 지역에 있는 유치원 두 곳을 방문하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개별적으로 집을 방문하여 PRES와 구문의미이해력검사 후 연구자가 만든 연결어미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산출과제는 아동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해과제는 해당하는 그림에 대하여 문장을 들려준 후 아동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본검사와 자발화 상황은 SONY TCM-20DV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유도발화는 검사를 실시하면서 online으로 기록하고, 녹음된 것을 전사하며 이차적으로 확인하였다.

(2) 자료평가

산출과제의 경우, 아동이 각 그림에 맞게 의미관계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선행절과 후행절이 의미적으로 적절한 연결어미로 접속되었으며, 아동이 산출한 문장이 문법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1점, 연결어미가 산출되지 않거나 사용되어도 의미적으로 선행과 후행의 적절한 연결어미를 유도하지 못하는 경우, 문장이 비문법적인 경우, 무응답한 경우, 모르겠다고 말한 경우에는 오반응으로 보고 0점을 주었다.

이해과제의 경우, 연결어미가 올바르게 쓰인 문장을 맞았다고 하는 경우와 연결어미가 올바르게 쓰이지 않은 문장을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를 정반응으로 보고 1점을 주었다. 반면 연결어미가 올바르게 쓰인 문장을 틀렸다고 하는 경우와 연결어미가 올바르게 쓰이지 않은 문장을 맞았다고 말하는 경우를 오반응으로 보고 0점을 주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언어병리학을 전공한 1명에 대해 검사 절차 및 채점 기준을 충분히 훈련시킨 후 2차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사자간 신뢰도는 96.12%였다.

4) 자료의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집단에 따라 연결어미 산출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집단에서 각각의 의미관계 내에서 사용하는 연결어미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체 연결어미 산출점수와 언어유형, 판단유형,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수행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 집단 내에서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에 차이를 일으키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표현 및 이해 능력 비교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의 연결어미 산출점수와 이해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산출점수와 이해점수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연결어미 표현 및 이해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3.188, p<.05$).

표 2. 연결어미 산출점수 및 이해점수, t검정 결과

언어유형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p
산출점수	다문화가정아동	14.80	5.09	-3.941	.001
	일반가정아동	21.60	1.95		
이해점수	다문화가정아동	16.70	4.40	-4.238	.000
	일반가정아동	23.20	2.04		

표 3. 연결어미 산출점수 및 이해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언어유형(산출, 이해)	30.625	1	30.625	2.298	.138
집단	442.225	1	442.225	33.188	.000
집단×언어유형	.225	1	.225	.017	.897
오차	479.700	36	13.325		

2)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표현능력

(1) 두 집단 간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 비교

연결어미 의미관계를 나열, 동시, 계기, 대립, 이유·원인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의 연결어미 산출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두 집단의 의미관계에 따라 연결어미 사용 능력에 차이가 나타났으며($F=5.844, p<.05$), 집

표 4. 두 집단 간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에 대한 t검정 결과

의미관계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p
나열	다문화가정아동	3.90	1.853	-1.877	.077
	일반가정아동	5.00	.000		
동시	다문화가정아동	2.20	2.044	-2.475	.023
	일반가정아동	4.00	1.054		
계기	다문화가정아동	4.00	.943	-1.909	.072
	일반가정아동	4.70	.675		
대립	다문화가정아동	3.40	1.075	-3.834	.001
	일반가정아동	4.80	.422		
이유·원인	다문화가정아동	2.30	1.337	-3.415	.003
	일반가정아동	4.10	.994		

표 5.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 점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의미관계	33.140	4	8.285	5.844	.000
집단	46.240	1	46.240	32.614	.000
의미관계×집단	4.460	4	1.115	.786	.537
오차	149.600	90	1.662		

단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F=32.614, p<.05$). 그러나 두 집단과 의미관계에 의한 상호 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786, p>.05$). 분산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2) 두 집단 간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유형의 차이 비교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사용한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유형과 의미 관계 내 연결어미 산출 비율을 살펴보았다. 의미관계 내 연결어미 산출 비율은 산출된 연결어미의 수를 의미관계에 따른 복문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모두 나열의 의미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결어미 ‘-고’하나의 유형만을 사용하였다. 동시의 의미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연결어미 ‘-고’와 ‘-(으)면서’를 사용하였다. 계기의 의미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모두 연결어미 ‘-고, -(아/어)서’와 보조용언 ‘-가지고’를 사용하였다. 대립의 의미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은 ‘-고’의 유형만을 사용하였으나, 일반가정 아동은 ‘-고, -는데’유형을 사용하였다. 이유·원인의 의미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은 ‘-고, -고서, -(아/어)서, -니까’를 사용하였고, 일반가정 아동은 ‘-(아/어)서, -니까’와 보조용언 ‘-가지고’를 사용하였다.

(3) 집단 내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사용비교

집단 내에서 5가지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사용 능력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에서는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사용 능력에 유의한 차이

표 6. 집단별로 산출한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 비율

	나열		동시		계기		대립		이유·원인	
다문화 가정아동	-고	100%	-고 -(으)면서	43% 57%	-고 -(아/어)서 가지고	24% 73% 2%	-고 -는데	100% 0%	-고 -고서 -(아/어)서 -니까	3% 3% 91% 3%
일반가정 아동	-고	100%	-고 -(으)면서	13% 88%	-고 -(아/어)서 -가지고	21% 77% 2%	-고 -는데	73% 27%	-(아/어)서 -니까 가지고	87% 4% 9%

표 7.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집단간	25.480	4	6.370	2.293	.074
집단내	125.000	45	2.778		
총점	150.480	49			

표 8. 일반가정 아동 집단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집단간	7.880	4	1.970	3.604	.012
집단내	24.600	45	.547		
총점	32.480	49			

가 나타나지 않았다($F=2.293, p>.05$).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나열과 계기는 다른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비해 수행이 높았으며, 동시와 이유·원인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사용능력이 가장 낮았다.

정상아동 집단에서는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사용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604, p<.05$). 분산분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의미관계에 따른 차이가 어느 의미관계의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나열과 동시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간에서만 나타났다. 일반가정 아동의 나열, 계기, 대립은 다른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비해 수행이 높은 반면, 동시와 이유·원인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사용능력이 낮았다.

3)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판단유형에 따른 연결어미 이해능력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 판단유형에 따른 연결어미 이해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238, p<.05$).

정문장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은 평균 16.70(SD 4.40)이며, 일반가정 아동은 평균 23.20(SD 2.04)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이 문법성 판단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판단유형에 따른 연결어미 이해점수, t검정 결과

언어유형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p
정문장	다문화가정아동	16.70	4.40	-4.238	.001
	일반가정아동	23.20	2.04		
오류문장	다문화가정아동	8.30	4.39	4.238	.000
	일반가정아동	1.80	2.04		

오류문장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은 평균 8.30(SD 4.39)이며 일반가정 아동은 평균 1.80(SD 2.04)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이 문법성 판단 능력에서 오류를 더 많이 나타냈다.

4.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 언어유형인 표현, 이해에 따라 연결어미 사용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집단 간에 연결어미 산출과제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판단과제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 산출점수와 이해점수를 비교했을 때 이해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 언어 및 어휘이해력의 발달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하여 지체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 언어 및 어휘이해력의 발달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하여 지체된다는 다른 여러 연구와도 일치한다(황상심, 2007; 이수정, 2008; 정은희, 2004).

두 번째 연구 문제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표현능력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먼저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연결어미 산출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집단 간 연결어미 산출 능력에 차이를 보였다. 다섯 가지 의미관계 간의 차이, 집단간의 차이가 함께 나타났으나 집단과 의미관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시, 대립, 이유·원인의 의미관계 연결어미 산출 점수에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나열과 계기의 의미관계 연결어미 산출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열과 계

기의 의미관계 연결어미의 경우, 두 집단의 사용빈도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 연결어미 유형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모두 나열의 의미관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연결어미 ‘-고’ 하나의 형태만을 사용하였다. 나열의 연결어미는 3세 정도부터 급속한 발달을 보여 연결어미 ‘-고’ 유형을 주로 사용한다는 여러 연구와 일치한다(서희선, 1996; 김정아, 2002).

동시의 의미관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두 집단 모두 ‘-고, -(으)면서’ 유형을 사용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고’와 ‘-(으)면서’의 연결어미 유형을 모두 제한적으로 사용한 반면,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으)면서’의 사용빈도가 훨씬 더 높았다.

계기의 연결어미 산출에서는 두 집단 모두 ‘-고, -(아/어)서’와 보조용언 ‘-가지고’를 사용하였고, 연결어미 중에서 ‘-(아/어)서’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보조용언 ‘-가지고’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적었다. 두 집단은 계기의 연결어미 유형 간에 산출 점수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연결어미 하위유형 ‘-(아/어)서’의 사용과 ‘-고, -가지고’의 사용 능력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났다. 연결어미 하위 유형의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기의 경우 3세부터 활발하게 ‘-고, -(아/어)서’의 유형을 사용하면서 4세 이후에는 산출 능력이 비교적 안정되는데 주로 ‘-(아/어)서’를 사용하여 계기의 의미관계를 표현하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의 사용 빈도는 줄었다(서희선, 1999). 계기의 의미관계에서는 낮은 연령에서도 ‘-(아/어)서’를 산출하기 때문에(서희선, 1999)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유사하게 연결어미를 사용하였고, 연결어미 유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립의 연결어미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고’의 유형만을 사용한 반면, 일반가정 아동은 ‘-고, -ㄴ데’유형을 사용하였다. 대립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2가지 연결어미 유형간 산출점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연결어미 유형과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배소영(1996)은 5세의 이야기 산출에서 대립의 연결어미 ‘-ㄴ데’가 정확히 산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ㄴ데’를 산출한 반면, 다문화가정 아동은 ‘-ㄴ데’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유·원인의 의미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고, -고서, -(아/어)서, -니까’의 연결어미를 사용하였고, 일반가정 아동은 ‘-(아/어)서’, ‘(아/어)서’와 ‘-고서, -니까, -가지고’의 산출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집단 간 연결어미 산출점수에

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유·원인 연결어미는 4세 이후에 거의 안정된 산출능력을 보이는데 아동들이 연결어미 사용 초기부터 ‘-(아/어)서’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니까’, 보조용언 ‘-가지고’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5세에 들어서도 ‘-(아/어)서’의 사용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희선, 1999).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하여 연결어미 사용의 능력은 미비하나 이러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연결어미 유형들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집단 내의 의미관계별 연결어미 사용 능력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다문화가정 아동은 다섯 가지 연결어미의 사용능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나열, 계기는 다른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비해 수행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립의 연결어미 사용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동시와 이유·원인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는 다른 연결어미에 비해 사용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의미관계별 사용능력을 비교했을 때, 나열과 계기의 의미관계 사용 능력이 일반가정 아동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동시, 대립, 이유·원인의 의미관계는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사용능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봤을 때, 다문화가정 아동은 다섯 가지 연결어미 중에서 나열과 계기의 의미관계는 일반가정 아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대립의 의미관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며, 동시와 이유·원인의 의미관계를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가정 아동은 다섯 가지 의미관계의 사용 능력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나열과 동시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가정 아동은 나열, 계기, 대립의 연결어미 사용능력이 높았고, 동시와 이유·원인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사용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동시의 연결어미 사용능력이 낮게 나타난 것은 5세 정도의 정상아동은 동시 연결어미 산출점수가 높긴 하지만 다른 의미관계에서 실수 없이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접속문을 산출한 것에 비하면 아직도 ‘-면서’의 정확한 사용이 미흡하다는 서희선(199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집단 간 판단유형에 따른 연결어미 이해능력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집단 간 판단유형에 따른 연결어미 이해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문법성 판단 능력에서 오류를 더 많이 나타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이해언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들과도 일

치한다(박신영, 2003; 정은희, 2004; 황상심, 2007; 이수정, 2008).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연결어미 사용 능력을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은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사용에 있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일반가정 아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측면도 있었으나 전반적인 수행능력에 있어서 일반가정 아동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자발적 발화가 아닌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발화를 유도한 결과이므로 자연스런 상황에서 발화를 수집하여 연결어미 사용을 살펴보는 연구와 비교하여 연결어미 산출능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 아동 수는 각 집단 당 10명으로 적은 수였으므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결어미 능력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므로 더 많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 연결어미 사용능력을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연결어미 사용능력간의 관계, 구문능력과 연결어미 사용간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법형태소 발달의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이야기 과제를 실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011년 5월 21일 접수, 2011년 6월 8일 수정, 2011년 6월 19일 채택

참고문헌

- 강순구, 1983, 흑백 그림의 카드 및 그림 크기가 교육 가능급 정신지체아동의 재인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아, 2002, 정상아동과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연결어미 사용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주환, 2002,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연결어미 발달: 3~5세 아동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희수, 2009,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언어치료사의 역할모형에 대한 제안, 언어치료연구, 18(4), 185-209.
- 김희수·김지채·권수진, 2009, 학년에 따른 학령기 다문화가정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생성이름대기 특성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331-360.
- 남기춘·김현정·박창수·황유미·김영태·심현섭, 2004, 연결어미가 글 이해와 기억에 미치는 효

- 과, 한글·언어·인지 학술대회, 251-258.
- 류현주·김향희·김화수·신지철,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특성, *음성과학*, 15(3), 133-144.
- 박신영, 2003, 이야기회상과제를 통한 영어-한국 이중언어사용 아동의 조사와 어말어미 사용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배소영·이승환, 1996, 한국 아동의 이야기 산출 연구(I), *말-언어장애연구*, 1, 34-67.
- 서희선, 1999, 2~5세 정상 아동의 연결어미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수정·신지철·김향희·김화수,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K-BNT-C를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17(3), 95-115.
- 이은경, 2000,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태학사.
- 전혜영, 1989,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화용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조은정, 2007,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동의 연결어미 이해 및 표현능력,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채연강, 1985, 현대 한국어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황상심,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황혜신·황혜정, 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 21(4), 69-79.
- Bates, E., Marchman, V., Thal, D., Dale, P., Reznick, J., Reilly, J., Hartung, J., 1994, Developmental and stylistic variation in the composition of early vocabulary, *Journal of Child Language*, 21, 85-123.
- Bedore, L.M. and Peña, E.D., 2008, Assessment of bilingual children for identification of language impairment: Current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1(1), 1-29.
- Bloom, L., 1970, *Language development: Form and function of emerging grammars*, Cambridge, MA, The MIT Press.
- Bloom, L., Lahey, M., Hood, L., Lifter, K.K., 1980, Fiess, Complex sentences: Acquisition of syntactic connectives and the semantic relations they encode, *Journal of Child Language*, 7, 235-261.
- Bloomfield, J., Dodd, B., 2004, Children with speech and Language disability: caseload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39(3), 303-324.
- Dodd, B., Holm, Wei, L., 1997, Speech disorder in preschool children exposed to Cantonese and English, *Clinical Linguistics and Phonetics*, 11(3), 229-243.
- Gathercole, V.C.M., 2002, Monolingual and bilingual acquisition: Learning different treatments of that-trace phenomena in English and spanish, In D.K. Oller(Ed.), *Language and literacy in bilingual children*,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Gleason, J. B., 2001, *The Development of Language(5th ed)*, Needham Hights: Allyn & Bacon.
- H. Lee Swanson, Kelly Rosston, Michael Gerber, Emily Solari, 2008, Influence of oral language and phonological awareness on children's bilingual reading,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 413-429.
- Hart, B. and Risley, T., 1992, American parenting language learning children: Persisting differences in family-child interactions observed in natural home environ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096-1105.
- Kim, S. Y., 1997, The early acquisition of Korean morphology: A case stud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 89-118.
- Loizou, M., Stuart, M., 2003, Phonological awareness in monolingual and bilingual English and Greek five-year-olds,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26(1), 3-18.
- Nelson, N., 1993, *Childhood Language Disorders in Context: Infancy through Adolescence*, New York, Merrill.
- Owens, R., 2005, *Language development: An introduction*(6th ed.) Boston, Allyn & Bacon.
- Paul, R., 2008,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 Louis: Mosby, Rakin, S.A., Sliwinski, K.N., and Borod, J.C., 1992, Clustering strategies on task of verbal fluency in Parkinson's disease, *Neuropsychologia*, 3, 95-99.
- 건강가정시민연대, 2004, 건강한 가정 위한 용어, 기독교보, <http://www.pckworld.com,news/>.
- 행정안전부,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2009년 8월 6일 보도자료, <http://www.mopas.go.kr/>.

Production of Connective Ending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Eun Ju Song *. Wha Soo Kim**

Abstract_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bility to identify the correct connective endings in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ordinary family. Twent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ordinary family aged 4, 5 and 6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en each per group. All subject were presented with 5 picture cards for 5 semantic relations(“list, simultaneity, succession, contrast, and reason/causality”)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their performance qualities of the two tasks.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their performances on semantic relations.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their performances on judging the correctness of the connective ending in a sentence.

Keywords_connective endings,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Speech & Language Pathology, sejhappy@naver.com(corresponding author)

** Daegu University, Speech & Language Pathology, whasoolang@hanmail.net

부록 2. 연결어미 이해과제 기록지

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점수: _____
 성별: _____ 검사일: _____

문항	문장	아동반응
1	엄마는 다림질을 하고 누나는 책을 봐요	
2	엄마는 빨래하고 아이는 목욕해요	
3	엄마는 청소하라고 아이는 바닥을 닦아요	
4	엄마는 머리 말리려 동생은 물을 마셔요	
5	아빠는 하품을 하고 아이는 잠을 자요	
6	동생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사과를 먹어요	
7	누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8	동생은 걸어가면서 과자를 먹어요	
9	누나는 전화를 하게 메모해요	
10	엄마와 누나는 차를 마시지 이야기해요	
11	동생은 색연필을 꺼내라고 색칠해요	
12	누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해요	
13	누나는 손을 씻지 밥을 먹어요	
14	동생은 옷을 꺼내서 입어요	
15	누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16	엄마는 우산을 쓰려고 아빠는 안 썼어요	
17	동생은 우는데 누나는 웃어요	
18	동생은 뛰라고 누나는 걸어요	
19	누나는 날씬한데 동생은 뚱뚱해요	
20	오빠는 책을 읽는데 동생은 자요	
21	누나가 약을 뿌리려 모기가 죽어요	
22	동생은 벽에 낙서해서 엄마한테 혼나요	
23	누나는 비가오고 우산을 써요	
24	누나는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25	동생은 밥을 많이 먹어서 해요	